

## 지 자 체 소 식

### ■ 광주, 오염총량관리로 영산강 수질 대폭개선

영산강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에 누락된 신규 개발계획 등에 대한 재조사가 추진된다.

광주시는 2010년까지 영산강 광주-나주 경계지점의 BOD(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를 5.6ppm 수준을 준수하기 위해 2004년 조사에서 누락된 개발계획 등을 재조사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는 2004년에 택지개발사업, 아파트건설 등 대규모 개발계획을 조사하여 156건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였으나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취소되었거나 누락된 경우, 신규로 계획된 사업장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난 9월 30일까지 조사를 해서 시행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오염총량관리란 기존의 배출허용기준 중심의 농도규제로는 하천 수질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2004년 조사결과를 토대로 2010년까지 영산강 나주 경계지점의 BOD를 5.6ppm 수준으로 준수하기 위해 BOD를 6,211kg/일 줄인다는 조건으로 올해 5월 4일 환경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환경부 승인조건을 맞추기 위해 자체 조사를 통해 시 전체 신규 오염배출량을 확정하고, 지역별, 산업별로 오염물질을 할당해서 점진적으로 배출량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하수처리장은 고도처리 시설 설치 등 구체적인 삭감계획을 마련하여 영산강의 수질이 대폭 개선될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 ■ 경기, 안성천 제모습찾기 공사 활발

경기도 안성을 가로 지르는 안성천 제모습찾기 공사가

시작 된지 4개월여 만에 35%의 높은 공정율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다.

안성시는 지난해 7월, 안성의 젓줄이라 할 수 있는 안성천을 되살리자는 시민들의 뜻에 부응하기위해 옥산교~안성대교구간에 이르는 좌안제 0.9km 구간을 정비하고 현재 2단계로 우안제 1.0km구간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다.

안성천제모습 찾기 공사는 총공사비 17억8,000여만원이 투입되며, 지난 5월 착공되어 2006년 5월에 완공될 예정으로 올 연말까지는 전체 공정의 70%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조성되는 안성천에는 수변 식물군락지인 생태공원과 자연생태 공간 2개소,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줄 자전거도로 1.0km, 산책로 0.9km와 족구 및 배드민턴장 2개소와 인라인스케이트장 1개소가 생긴다.

또, 하천 내 저수호안 녹화와 휴게공간 2개소, 옛 추억을 되살려줄 수 있는 징검다리 3개소를 설치하고, 이곳을 찾는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100면정도의 적절한 주차 공간도 마련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안성천의 수질개선을 위해 하천 내로 흘러드는 하수를 차단하기위해하수 유입관을 설치하여 운영한 결과 하천 내 악취는 모두 사라지고 여러 종류의 물고기가 노니는 큰 효과를 가져 온 바 있다.

또한, 지난 7월, 완공된 좌안제 정비공사에 하천환경복원을 위한 하천구간별 습지와 식생대, 체육시설과 생태친수 공간 확보, 산책로와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받고 있다.

### ■ 서울, 청계천 우안 웰빙보도 완공

서울시 성동구(구청장 고재득)가 ‘꿈과 희망의 수변도시, 무지개피는 성동’이라는 구의 이미지에 걸맞는 건강도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청계천 복원사업 완공을 앞두고 지역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하고자 신설한 살곶이공원 진입로부터 사근~용담간 인도교까지 720여미터 보도구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도블록이 아닌 목재보도를 설치함으로써 목재 특유의 탄력으로 인한 편안한 보행감은 물론, 주변 가로수와 어우러진 나무내음으로 무미건조한 도시생활에 활력을 주고 있다.

여기에 사용된 목재보도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생산되는 순수 국산목재인 '삼나무' 로써 물을 만나면 스스로 향을 발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성동구가 올해 3월경 서울시 최초로 옥수동 옥정중학교옆 콘크리트 계단을 목재계단으로 정비해 주민들에게 크나큰 호응을 얻은바 있다.

이외에도 응봉동 대림아파트옆 응봉초등·광희중학교 학생들의 목재통학로는 보행자들의 안전확보뿐만 주위 미관을 한껏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 ■ 경남, 덕천강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진 박차

진주시가 남강댐 상류 수곡면 원내리 저지대 농경지 침수 방지와 농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덕천강 지류에 위치한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2005년말 완공을 목표로 지난 2003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선정하고, 총 37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Q=3.2 m<sup>3</sup>/sec, 100HP×800mm×2대, 60HP×600mm×1대의 배수펌프장, L=2,356m규모의 배수로와 배수구역 배수로 추가설치(L=1,394m) 건설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추가소요 사업비 17억원 확보를 위해 건설교통부를 방문 지원건의한 결과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예정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남강댐 상류 수곡면 원내리 저지대 농

경지 25.5ha가 침수피해에서 벗어나게 되며, 농작물의 침수예방과 재해발생을 사전에 원천봉쇄 할 수 있게 되고, 수곡면 일대 원외리 남강일원을 찾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게 되어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충남, 에너지절약 자발적협약(VA) 체결

충남도가 도청 대회의실에서 심대평 충남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주)진로산업(대표 손종호) 등 도내 24개업체와 '자발적협약' 을 체결했다.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은 에너지절약과 온실가스(CO<sub>2</sub>등) 배출감소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제환경 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간 에너지사용량 2천toe이상 되는 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대상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비규제적 제도로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진다.

도는 (주)진로산업 등 24개업체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5년동안 공정개선, 폐열회수설비 및 고효율기기 등 설치를 통해 에너지사용량의 약 13%인 14만toe(석유환산톤)을 절약해 287억원의 비용 절감이 예상된다.

이들 업체에게는 연 2.0%의 에너지절약 시설자금(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동일 사업장당 250억원(업체당 500억원) 이내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에너지절약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법인세 10%)와 산·학·연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기술지원단'의 기술지원과 기업홍보 등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24개업체와 자발적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협약대상인 연간 에너지소비량 2,000toe이상업체 114업체중 85%인 97개업체(중앙협약24, 도협약73)와 협약을 체결 하였으며, 지난 1998년 제도도입 이후로 꾸준히

## 지자체 소식

증가추세이며, 앞으로도 대상업체의 참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 울산, 천상정수사업소 신뢰도 강화

울산 천상정수사업소가 ISO 품질 / 환경 통합인증서를 취득해 맑은 물 공급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한층 더 강화했다.

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천상사업소는 ISO 국제 규격에 맞는 품질 / 환경 경영시스템을 구축, 국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2일 오후 2시 상수도사업본부 1층 종합상황실에서 노맹택 상수도사업본부장을 비롯한 환경 및 상수도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갑진 CRS 인증원 대표로부터 김용운 천상정수사업소장이 인증서를 전달받고 인증 동판 현판식을 갖는다.

이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는 지난 2월 컨설팅업체를 선정, 3월부터 추진팀을 구성해 7월까지 지도·자문을 통한 문서화 작업을 수행하고 지난 8월 9일 인증기관 선정 및 심사를 의뢰, 8월 문서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인증서를 취득하게 됐다.

천상정수사업소가 취득한 인증서의 인증 범위는 “수돗물생산 및 공공행정 서비스(Production and Supply of Water and Public Administration Service)”다.

“ISO 품질 / 환경 통합경영 시스템 인증”은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직이 구체적인 품질 /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인적, 물적자원 등의 관리체제를 국제표준규격에 따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자격 있는 제3의 기관이 평가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 ■ 전북, 새만금유역 기초환경시설 공사 '지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유역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올 2월 착공한 새만금 유역 하수종말처리장 6개 권역 2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말 현재 공정률은 올해 목표 14.8%에 크게 못 미치는 3.61%로 조사됐다.

권역별로는 올해 공정 목표 42.3%인 정읍권이 공정을 3.73% 밖에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익산권 2.46%(올해목표 9.8%), 완주권 3.24%(25.8%), 군산권 3.2%(11.4%), 부안권 14.2%(33.1%), 김제권 3.1%(6.8%) 등 전체적으로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공사가 지연되는 것은 군산권의 서수, 옥서, 회현 처리장과 완주권의 고산, 구이 처리장, 익산권의 익산 북부처리장 김제권의 죽산 처리장 등이 민원 발생으로 아예 공사를 추진하지 못하거나 처리장 위치 변경을 추진했기 때문이라고 전주환경청은 밝혔다.

새만금 유역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1천 700억원을 투입해 200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민간투자자인 (주)전북엔비텍에서 사업비 일부(30%)를 부담해 건설한 뒤 20년간 운영하면서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 ■ 경북, 수질환경사업소 개방

경북 예천군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 예천읍 상리에 있는 수질환경사업소의 휴양시설과 운동시설을 주민들의 휴식과 체육공간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군은 수질환경사업소의 잔디광장과 팔각정, 산책로 등

휴양시설과 운동시설인 테니스장 2면, 다목적 잔디운동장을 지난 16일부터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지난 7월부터 관목류 1만여주와 초화류 1천본을 식재하는 등 주변경관을 정비했으며, 운동시설인 테니스장은 야간에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트시설이 갖춰져 있다.

예천하수종말처리장은 5만1천983㎡(1만5천725평)의 부지에 연건평 2천281㎡(691평) 규모로 총공사비 336억6천여만원을 투입, 지난 99년 12월 착공해 지난 4월말 완공돼 가동중에 있다. 1일 처리용량은 하수 7천500㎡, 분뇨 50kℓ이다.

예천군은 지역주민들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수질환경사업소를 주민휴식공간으로 개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 충북, 소하천 정비사업 1억 2천만원 벌어

충북 괴산군이 2005년도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1억2,000만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거두었다.

군은 오염소하천 3개소, 12억3,900만원, 위험소하천 정비 2개소 6억6,700만원 등 총 5개 지구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 폭이 넓어져 도록폭이 작아지거나, 하천이 높아져 도로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사를 추진했다.

또, 기존의 세멘블럭 공법에 따른 자연 훼손을 막고, 자연친화적 공법인 호안 공법을 적용제방내 초화류가 활착되도록 해 민물어류의 서식환경을 좋게 만든다.

특히, 영춘오염소하천정비사업 추진시 2004년 삼방지구 경지정리 사업지구로 편입 되도록 유로변경을 협의해

당초 소하천 정비계획에 의한 하폭 당초 8.0m보다 5m가 넓은 하폭을 확보 하였으나, 사업비는 1억 2,000만원 절감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 ■ 강원, 광산폐기물 처리 본격화

광산폐기물 장기방치로 주변 토양 및 수질오염이 심각한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송천광산 일대 폐기물처리사업이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강릉시에 따르면 오대산국립공원내에 있는 송천광산은 지난 1939년 처음 광업권이 설정돼 금·은 채광을 위해 가동해오다 1970년대 후반부터 실제 채광이 중단된 뒤 1995년 광업권이 완전 소멸됐다.

그러나 광업권이 소멸된지 10년이 지나도록 광산폐기물의 일종인 광미를 반출 처리하지 못했고 유실되는 것으로 막는 시설이 없어 광산주변 토양 및 지하수, 하천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됐다.

이에 한국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 연구진이 지난 2002년 10월과 2003년 3월, 5월 3차례에 걸쳐 송천광산 주변을 조사한 결과 토양과 수계내에서 비소, 납, 아연 등 중금속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공해방지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기 위해 최근 입찰 공고와 함께 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달중 업체를 선정할 후 내년 1월말 까지 용역 결과를 납품받아 내년 예산에서 19억원을 추가 확보할 계획”이라며 “내년까지 이 일대 광미 1만여㎡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한 반출 처리 및 추가 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